

'캔자스시티 왕조' 열었다 ... 슈퍼볼 2연패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20년에 걸쳐 미국프로 풋볼(NFL)을 지배한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는 메이저리그(MLB)의 뉴욕 양키스, 미국프로농구(NBA)의 LA 레이커스, 보스턴 셀틱스와 함께 역대 최강의 스포츠 '왕조'를 이룩한 팀으로 꼽힌다. 뉴잉글랜드는 슈퍼볼 정상에만 6번 오르며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거듭났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왕조는 2020년 브래디가 탐파베이 버커니어스로 이적하면서 끝이 났다. 이후 그 자리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브래디의 은퇴로 현역 최고 쿼터백으로 올라선 패트릭 마흐스는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12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8회 슈퍼볼은 캔자스시티와 마흐스의 시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무대가 됐다.

이날 캔자스시티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혈투를 펼친 끝에 25-22 역전승을 거두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통산 4번째 슈



▲ 캔자스시티 우승의 주역인 패트릭 마흐스가 우승 트로피 빈스 롬바르디를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si.com

퍼볼 정상에 올랐다. 슈퍼볼 2연패는 이번이 8번째이자, 2004~2005년 뉴잉글랜드 이후 19년 만이다.

최근 5년간 4번 슈퍼볼에 올라 그중 3번을 우승한 캔자스시티는 명실상부한 왕조를 건설했다. 또 2020년 54

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우승한 데 이어 4년 만에 또 한번 샌프란시스코를 누르고 우승했다.

강력한 수비를 앞세운 샌프란시스코가 2쿼터까지 10-3으로 앞서갈 때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가 1995년 이후 29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후반 들어 마흐스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경기 양상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두 팀은 19-19로 정규 시간에 승패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 마흐스는 직접 공을 들고 뛰는 작전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 경기 종료를 앞두고 오른쪽을 파고드는 와이드리시버 미콜 하드먼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 경기를 마무리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마흐스는 슈퍼볼 MVP에 등극했다. 마흐스는 앞서 두 번의 슈퍼볼 우승 때도 모두 MVP에 뽑혀 브래디(슈퍼볼 MVP 5회)와 간극을 좁히며 전설로 가는 길을 닦았다.

피닉스 오픈만 음주 허용? 마스터스 맥주컵은 기념품

11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 오픈이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에서 막을 내렸다. 이 대회는 올해도 흥행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매 라운드가 약천후로 순연되는 등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웠음에도 수십만 갤러리가 운집했다. 대회 주최측이 2019년부터 입장 관객을 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관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마지막 날에도 갤러리가 코스 가득 메워 인기를 실감케 했다. 역대 최다 관객은 2018년 기록한 79만1000명이다.

13일 '이텔일리'에 따르면 WM 피닉스 오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성'과 '맥주'다.

이 대회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독특한 응원 문화 덕분이다. 조용하게 경기를 관전해야 하는 일반 골프대회와 달리 WM 피닉스 오픈의 16번홀에선 시끄럽게 떠들고 환호하고 합성을 질러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골프 해방구'라는 수식어가



▲ 2019년 마스터스 대회장에서 판매한 4달러 생맥주. 사진=SBS 뉴스

붙었다. 또 갤러리들은 맥주도 마실 수 있다. 그렇다면 갤러리의 음주를 허용하는 대회는 WM 피닉스 오픈뿐일까?

PGA 투어는 물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도 술 판매를 금지하거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대회는 없다. 맥주 등을 마시며 경기를 관전하는 분위

기는 골프대회에서 흔한 풍경이다.

다만, WM 피닉스 오픈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는 것처럼 포장된 이유는 16번홀의 독특한 응원 문화와 어우러진 현상 때문이다. 크게 소리치며 응원하는 팬들의 손에 맥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일반 대회 때는 이런 갤러리의 모습을 TV 화면에 잘 비추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 대회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맥주로 유명한 대회가 또 있다.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리는 마스터스다.

마스터스 대회장에선 4달러짜리 맥주를 주문하면 초록색이나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아 준다. 다 마신 맥주컵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챙기는 골퍼가 적지 않다. 플라스틱 컵에는 마스터스 로고와 연도가 표기돼 있어 이를 기념품 대신 수집하기도 한다. 주최 측에선 이 컵만을 따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